

17. 저장조건이 수도 발아력에 미치는 영향

(농촌진흥청 시험국) 오용비*, 장영선, 박희생

유전자원의 장기 안전 보존관리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는 수도 품종중 저장기간이 96-86-58-20 개월 된 일반계 3 품종, 다수계 1 품종 모두 무작위 선택 공시하고 저장조건에 따른 발아력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1. 저장온도에 따른 전체발아율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저장기간이 길 수록 저온 ($15-17^{\circ}\text{C}$) 발아시 발아율, 평균발아일수, 발아계수등이 낮아졌고 통일품종은 다른 일반계 3 품종보다 저온 ($15-17^{\circ}\text{C}$) 발아성이 낮았다.
2. 저장기간 96 개월에서도 어느 품종이든지 고온 ($30-32^{\circ}\text{C}$)에서 발아시킬 경우 90 % 이상 발아율이 유지되었다.
3. 저장기간이 길수록 이상발아 개체가 많았다.
4. 저장시 종자내 수분함량이 많고 (21 %) 공기유통이 되지 않는 용기 (비닐)에 밀봉 보관시는 발아력 상실이 빨랐다.